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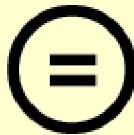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이 경 자

지도교수 이 경 희

2 0 1 9 년 8 월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이
경
자

2
0
1
9
년
8
월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이 경 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1 9 년 8 월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이 경 자

이경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박 정 숙

부 심 이 경 희

부 심 강 민 경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1 9 년 8 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가설	4
4. 용어정의	4
II. 문헌고찰	6
1.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6
2.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	8
III. 연구방법	11
1. 연구설계	11
2. 연구대상	11
3. 연구도구	13
4.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14
5. 자료수집	24
6. 자료분석	27
7. 윤리적 고려	27
IV. 연구결과	28
1.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28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30
3. 가설검정	30
V. 논의	33
VI.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41

부록	48
영문초록	72
국문초록	75

표 목차

표 1.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회기 구성	18
표 2.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21
표 3.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29
표 4. 두 집단 간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30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비교	3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설계	11
그림 2. 연구 대상자 참여 흐름도	13
그림 3. 프로그램개발과정	16
그림 4. 자료수집과정	2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신질환별 평생 유병률은 25.4%이며 그중 남성이 28.8%, 여성은 21.9%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최근 시행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2013년도 정신장애인 추정 수가 102,772명에서 5년 후인 2017년에는 111,03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 조현병은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의 4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질환으로 201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빅 데이터 분석결과,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2년 100,980명에서 2017년 107,662명으로 늘어나 2012년 대비 약 7%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조현병은 인지, 행동, 정서 등 여러 영역에서 정신적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며, 발병 후에는 사회적·직업적 기능 수준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정신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조현병은 현실감각 능력 장애와 모순적 행동, 대인관계 회피 등을 특징으로 하며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무감동, 무의욕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화될수록 부적절한 감정표현, 둔화된 정서상태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적절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유발하게 된다(Davis & Gibson, 2000; Howes & Murray, 2014).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정서표현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응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향상으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를 적절히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Judge, Perkins, Nieri, & Penn, 2005).

정서적 측면에서 정서행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타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감정인식, 감정조절, 감정표현,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하는데(이우경, 이혜원, 황태연, 2004),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은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 인식하고,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다

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Berenbaum & Oltmanns, 1992; Edwards, Jackson, & Pattison, 2002). 따라서 정서관리는 조현병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신간호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간호중재영역이다.

대인관계기능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협동이 가능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능을 말한다(임려원, 2017; 최세영, 한주빈, 오봉욱, 2017). 그런데 조현병 환자는 부적절한 현실상황인식으로 인하여 만성화 경향이 높고 외부에 대처하는 기능이 약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렵고 이 같은 상황의 반복으로 점점 더 대인관계기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강규, 1990; 이혜진, 2009; Cechnicki, Wojciechowska, & Valdez, 2008).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약물치료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활치료가 병행되어지고 있으며 재활요법 중 음악치료는 음악활동 안에서 문제행동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동기부여, 현실인식증진, 감정표현, 적절한 정서경험 등의 내적변화와 사회기술개선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Davis, Gfeller, & Thaut, 2008; Mössler, Chen, Heldal, & Gold, 2011). 또한, 정신질환자에서 음악치료는 양성 및 음성증상을 감소시켰고, 감정표현과 감각운동의 기능향상과 정신병적 증상관리, 우울 및 불안감소,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향상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McCaffrey, Edwards, & Fannon, 2011).

음악은 사람의 뇌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생리적 변화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데(Davis & Thaut, 1989), 음악적용 시에 편도체에서 시상하부로 진행되는 신경신호를 감소시킴으로써 코티졸의 분비를 막아 혈압감소, 심박수안정과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Thaut, 1990). 또한, 음악은 외부의 청각적 자극을 증가시켜 내부의 자극을 줄임으로써 조현병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인 환청의 강도나 빈도, 지속시간 등을 줄이고 조현병 환자의 환청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Buccheri et al., 2004). 이와 같은 기전으로 인해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조

현병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trobel과 Huppman(1991)은 감정과 정서를 유발하는 음악의 효과들은 대상자가 빠르게 문제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 일어나는 연상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민요장단은 정서적, 감정적인 것들을 표출하거나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김현정, 정재원. 2013).

한국 민요는 7개의 음으로 구성된 서양 음계와 비교하여 3·5음의 단순한 구조로 부르기 쉽고, 대상자에게 감정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조경숙, 2017). 리듬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성을 띠면서 반복되는 서양음악의 박자와는 달리 한국 민요의 장단은 한 곡 안에서도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주자의 감정을 최대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즉흥성이 높으며, 한국 민요의 음악적 구조는 다양한 가창 방식 안에서 음의 높낮이, 장단의 속도에 따라 감정의 변화 및 감정의 표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이성재, 2006; 임혜성, 2013). 이는 대상으로 하여금 정해진 리듬 안에서 자기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즉흥적인 감정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한국 민요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정서관리훈련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왔으나(박영숙, 권윤희, 2012; Tseng, et al., 2016),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현병 환자에게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 1) 제 1가설: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행동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 2) 제 2가설: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대인관계기능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4. 용어정의

- 1)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
 - (1) 이론적 정의: 한국 민요는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자연스럽게 감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서한범, 2010) 이러한 정서적 기능을 적용하여 노래로 자기감정을 표현 및 조절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치료적 목적에 맞게 민요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악 치료적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박경호, 김현정, 2017).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에 효과를 보기 위해 노래 부르기, 개사하기, 악기연주하기, 장단 치기, 신체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주 2회, 총 15회기의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그램을 의미한다.

2) 정서행동

- (1) 이론적 정의: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기분과 정서 상태를 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Mueser, et al., 1996).
- (2) 조작적 정의: 이우경 등(2004)이 개발한 도구로,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대상자의 정서행동을 평가하는 질문지와 정서와 관련된 행동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대인관계기능

- (1) 이론적 정의: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대인간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제반의 행동, 즉 사교적 기술이나 대인관계기술이며 넓게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도구적 행동이다(Penn, Corrigan, Bentall, Racenstein, & Newman, 1997).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Wallace (1986)의 독립적인 생활기술 조사지(Independent Living Skill Survey)를 김성직과 한양순(1997)이 우리나라의 재활상황에 맞도록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조현병의 조현(調絃)은 ‘거문고의 줄을 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계나 정신의 조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문제가 생긴 질환이라는 과학적 해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민성길, 2015). 조현병은 정신장애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망상, 환청 등의 양성증상과 무의욕, 무쾌감, 정동의 둔마 등의 음성 증상을 보인다(Davis, Kurzban, & Brekke, 2012). 이는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며 정서 지각 결함으로 부적절한 사회적 반응이 스트레스 수준을 증대시키거나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환자의 재발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초래한다(Kerr & Neale, 1993). 조현병 환자 관련 연구에서 이런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Heimberg, Gur, Erwin, Shtasel, & Gur, 1992; Kerr & Neale, 1993). 정서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감정인식능력은 정서경험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며 자신의 감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지속시키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를 낳게 된다(Kurtz & Richardson, 2012). 감정표현은 자신의 감정경험을 외부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하지만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정서인식의 둔마로 인해 감정표현을 외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감정표현능력의 결여는 자신의 감정표현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의 미숙으로 대인관계형성에 저해요인이 된다(손애리, 김지웅, 황순택, 최은애, 김성은, 2004). 이수정과 이훈구(1997)는 조현병 환자들이 자극에 대한 감정인식 이후 감정조절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하였고, 이는 감정인식과 반응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감정조절과정에서의

손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정서행동의 문제는 대인관계 기능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성직과 한양순(1997)의 대인관계기능 척도의 세부구성에서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감정조절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가, 화를 낼만한 상황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가를 관찰하여 대인관계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대인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동 관계가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때 인간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비효과적일 경우 인간의 성장 및 발달은 방해받고 고독과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구효진, 이봉건, 2011). 최근 연구된 정신재활요법의 하나로 음악치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윤현덕, 2016; 이혜진, 이대보, 박민철, 이상열, 2014), 음악치료는 치료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음악을 주된 중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Chong, 2015),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대상의 정서, 인지에 영향을 미쳐 행동의 변화까지 유도하며, 주로 의학, 간호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음악을 환자의 증상 완화 및 기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 중재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Bradt, Dileo, & Shim, 2013; Yinger & Gooding, 2015). 또한, 음악치료가 정신질환자에게 있어 동기부여개선 및 대인관계기능,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McCaffrey et al., 2011). 음악치료의 활동은 위축된 정신질환자들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끌어내어 의사소통 기술을 돕는다고 하였고 예술적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 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수정, 2010; 박영숙, 권윤희, 2012; 윤현덕, 2016; 홍혜영, 정광조, 최애나, 2011; Mössler et al., 2011; Silina, Georgi, Gebhardt, & Weber, 2012; Tseng, et al., 2016). 특히 활동적인 음악치료접근법에서 공감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Chanda & Levitin, 2013; Koelsch, 2010).

2.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

한국의 민요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를 말하는데,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분명치 않아도 몇 세대를 내려오는 동안 고쳐지고 다듬어져 민족 특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서한범, 2010). 한국 민요는 대부분 긍정적인 가사와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분노나 한을 풀어주는 슬픈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도 함께 존재하며, 흥을 돋우는 특징도 있지만 괴로운 현실을 노래로 부르며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정서적 기능이 있다(이연옥, 2013). 이러한 정서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자연스럽게 감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구비 전승되는 만큼 개방된 주제로 삶과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이성재, 2006).

또 다른 특징으로 한국 민요는 감상할 때 추임새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역할로 추임새가 매우 중요하며, 추임새를 통한 자연스러운 공감의 표현은 서로 간에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고 사회성을 향상하며, 민요를 부르기보다 추임새와 동작을 함께 적용한 경우 사회성 영역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박소영, 황은영, 2013).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에서 가사의 일부분을 바꾸어 부르는 등의 즉흥성은 현재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치료대상자의 내면을 알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이나 갈등, 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고 말로써 전달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김효선, 2018; 임혜성, 2013), 즉흥연주 안에서 지지하고, 자극하고, 안정을 주고, 느낌을 변화시키는 등 다른 사람들과의 음악적 대인관계를 촉진하여 신뢰감을 쌓고, 현실인식능력이 향상되며 집중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박경호, 김현정, 2017).

한국 민요는 집단성이 강한 음악이므로 집단음악치료 형태에서 효과적이며 치료적 목적을 위해 두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음악적 활동을 진행하는 과

정으로 집단 내에서의 음악 활동이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인치료 상황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집단 내에서의 사회성,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임혜성, 2013).

집단음악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는 자신의 음악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무관하게 동등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개인치료에 비해 자신을 드러내어 놓지 않더라도 집단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담스럽지 않은 장점이 있다(황준성, 채민, 박영주, 2012).

한국 민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창 방식인데 서양의 민요는 대부분 같은 가락을 혼자, 혹은 여럿이 부른다. 이에 비해 한국의 민요는 흔히 한 사람이 앞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합창으로 부른다(이성재, 2006). 이 같은 선후창 방식은 한국 민요 활용 음악치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음악치료활동의 중요한 중재 도구로, 먼저 부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나중에 부르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지지와 반응을 받을 수 있게 또한 후렴 부분을 다 함께 부르면서 구성원 모두가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지며 집단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조경숙, 2017; 임혜성, 2013).

한국 민요의 장단은 호흡의 길이에 따라 생성되는데 호흡은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긴장이나 불안, 심리적 상태에 따라 호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호흡은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정현주, 2013). 장단과 호흡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 호흡의 길이가 짧은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 세마치장단은 가라앉은 기운을 북돋아 밝고 활기차게 하며, 이 같은 장단의 빠르기는 사람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권서령, 강경선, 2013; 이연옥, 2013).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가 최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요의 선후창방식의 음악활동이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형성에 효과적이고, 독거노인의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 시각장애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효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사회성 증가와 고독감 감소, 초등학교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효

과, 특수아동의 문제행동교정에 민요가 활용되었다(남인숙, 정광조, 최애나, 2013; 박정호, 김현정, 2017; 박유숙, 2012; 박정순, 2011; 임혜성, 2013; 서경희, 2010). 이러한 결과는 서양음악을 활용한 음악치료에 비해 한민족의 노래이며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음악요소를 지닌 한국 민요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활동에서 매우 합당한 음악치료임을 시사하고 있다(권서령, 강경선, 2013). 그런데 기존의 음악치료관련 연구들은 조현병 환자의 정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기능손상에 목표를 둔 재활요법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왔으며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타인의 정서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 음악치료요법은 없다. 대다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은 포함되어 있으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공유하는 훈련은 간과되어있다. 원만한 대인관계기능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서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서행동을 다른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서행동 자체가 연구의 주요개념이 되어야하며, 또한 정서행동은 상호교류적인 것으로 자기표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호 간 이해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감정표현을 가능케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처한 문제를 타인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입원 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인관계기능과 정서행동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유사 실험 설계이다(그림 1).

그룹	사전	실험처치	직후	2주후
실험군	E1	X	E2	E3
대조군	C1		C2	C3

C₁, E₁: 프로그램 시행 1주전 일반적 특성, 정서행동, 대인관계기능

C₂, E₂: 프로그램 시행직후 정서행동, 대인관계기능

C₃, E₃: 프로그램 시행 2주 후 정서행동, 대인관계기능

X: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효과를 위한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그림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25, 효과크기 0.8, 검정력 0.9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수는 집단별로 19명이 필요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24명, 대조군 24명으로 총 48명을 모집하였다. 연구진행중 실험군에서 중도에 거절한자 2명, 퇴원 1명, 질병으로 인해 프로그램참여 불가능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탈락하였고, 대조

군의 탈락자는 없어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24명으로 총 44명을 분석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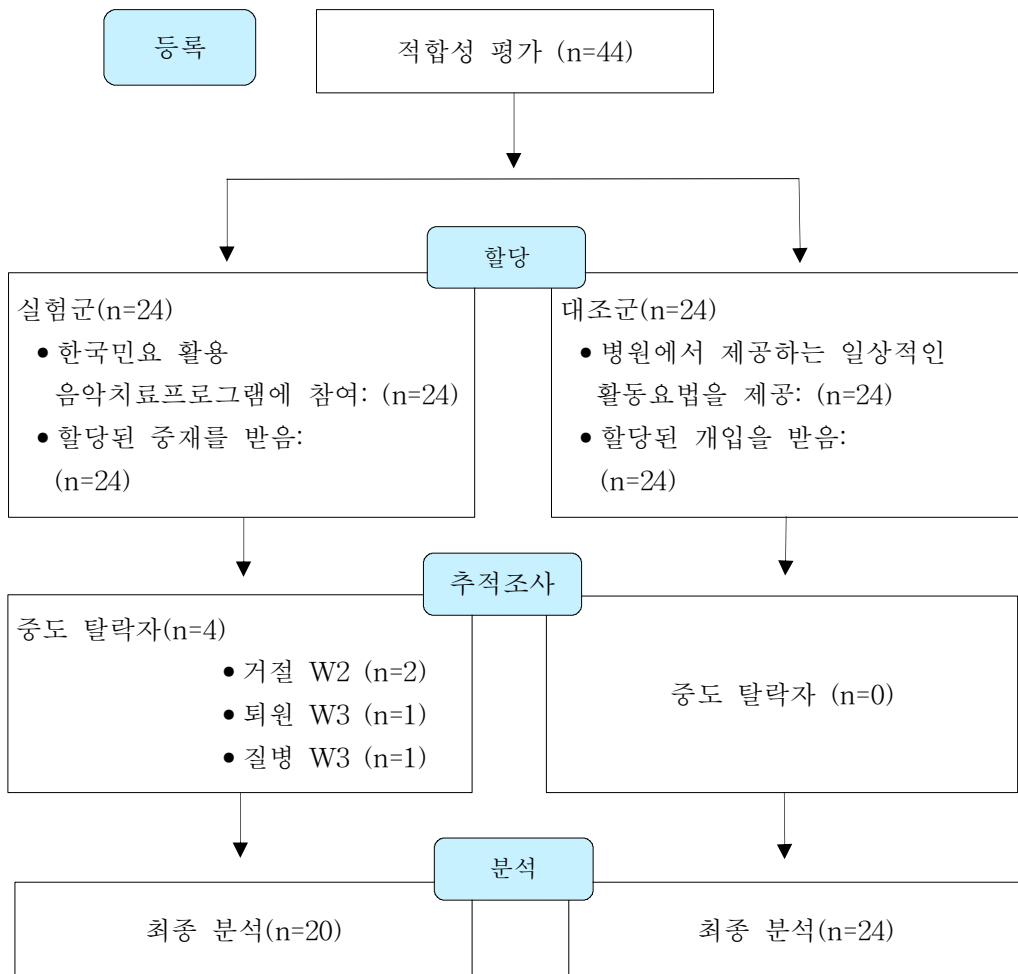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경북소재 1개의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조현병 환자로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 1)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인 DSM-5에 의해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자
- 2)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본 프로그램참여가능 소견을 받은 자
- 4)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5)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본 연구 대상자의 제외기준

- 1) 조현병 이외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 2) 뇌의 기질적 문제나 정신지체가 있는 자
- 3) 시·청각장애가 있는 자
- 4) 구음 장애가 있는 자



W2=실험 2주; W3=실험 3주.

그림 2. 연구 대상자 참여 흐름도

3. 연구도구

1) 정서행동 척도

이우경 등(2004)이 개발한 도구로,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대상자의 정서행동을 평가하는 질문지와 정서와 관련된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하위척도에는 4개영역으로 자기감정인식 및 표현 8문항, 타인에 대한

감정인식 3문항, 감정조절 4문항, 대인관계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반영한 정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정신과 경력이 15년 이상인 수간호사 1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소지자 2인으로 총 세 명이 관찰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자간 신뢰도(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는 .820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기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Wallace (1986)의 독립적인 생활기술 조사지(Independent Living Skill Survey)를 김성직과 한양순(1997)이 우리나라의 재활상황에 맞도록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그 중 대인관계기능 척도의 23문항을 사용하였고, 최소 점수는 23점이고 최고 점수는 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기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정신과 경력이 15년 이상인 수간호사 1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소지자 2인으로 총 세 명이 관찰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자간 신뢰도(ICC)는 .810으로 나타났다.

4.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은 2019년 5월 13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제 C-2019-013338 호)로 저작권 등록

이 되어있다.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현재 2급 정신건강간호사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정신과 경력만 만 15년차로 총 20여년의 임상경력의 소유자이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바가 있다. 학부에서 간호학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으로 경기민요를 전공하였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증”을 소지하였으며, “대구 무형문화재 제2호 날피북춤”에 소속되어 다수의 국악공연에 참여(2012년도 한 해 동안 10회 이상의 국악 관련 공연 등)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요 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부록).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조현병 환자를 위한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은 그림 3의 프로그램 개발 흐름도와 같다.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프로그램작성, 내용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최종프로그램개발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예비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본 연구자는 임상실무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문제는 잘못된 정서인식과 부적절한 정서표현방법으로 인해 대인관계기능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목록은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하여 자기인식 및 감정표현, 타인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의 일치와 비언어적인 기술의 향상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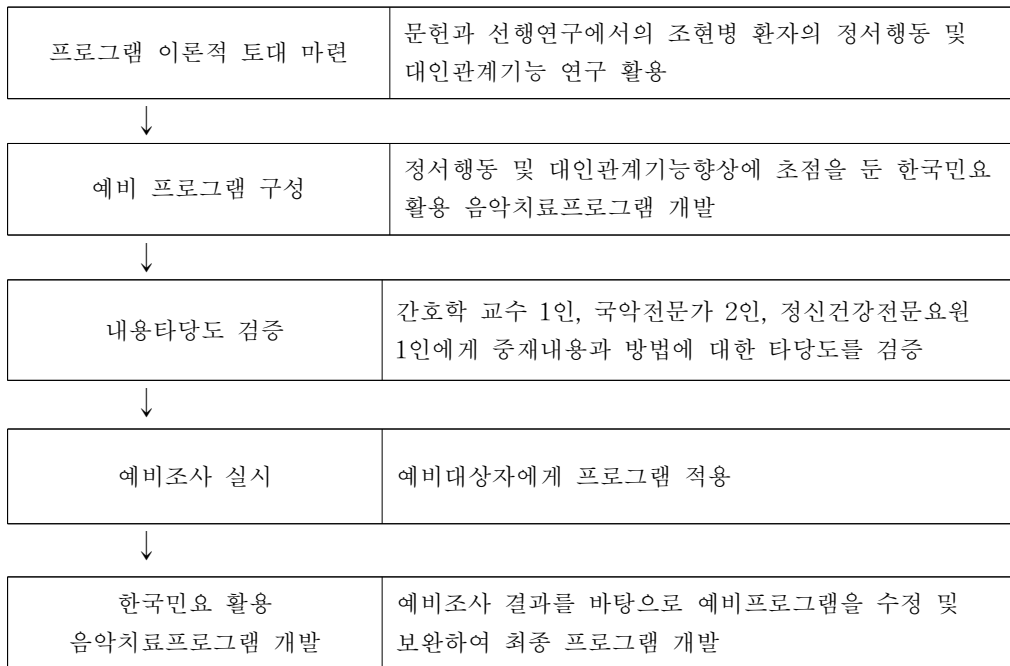


그림 3. 프로그램개발과정

3)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검증 및 예비조사

예비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하여 프로그램의 중재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과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전문가집단은 총 4인으로 현재 활동 중인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악전문가 1인(종묘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전수, 현재 국악연주단 “동이락” 대표)과 국악을 전공하고 현재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날피북춤 보존회의 전수 장학생으로 대구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 강사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악강사 1인과 현재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 병동에서 재활프로그램 경력 10년 이상 된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 총 4인에게 내용 타당성과 진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효과를 위한 각 회기의 중재목록선정이 적절하고 한국민요의 특징적인 활용이 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현병 환자의 특성을 고

려하여 쉽고 간결한 회기별 목록을 구사할 것과 노래 부르기 외에도 악기 연주나 신체활동을 넣어 흥미와 동기유발을 더 할 것,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활용을 통한 행동적 중재를 포함할 것을 자문 받았다.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현병 환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까’라는 평가 문항으로 적절성, 흥미 및 관심, 효과성, 적용 가능성의 네 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 당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내용 타당도 지수가 모두 .90 이상이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된 예비 프로그램의 일부를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 3명에게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중재 방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비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예비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주말 병동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였고 예비조사 대상자들에게 정서행동 중에서 자기인식 및 감정표현의 내용으로 구성된 총 3회기의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각 회기는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시간에 대한 불편감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후 대상자의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대상자가 따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중재내용의 민요곡을 익숙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민요로 수정하였으며 동영상 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의 세부내용을 확정하였다.

4)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전체 15회기로 구성하여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50분간 주 2회 총 8주간 시행하였고, 매 회기는 도입·전개·마무리단계로 진행하였다(표 1).

표 1.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회기 구성

전개	목표	활동내용	시간
도입	프로그램시작 인지 및 준비	안부인사 나누기	5분
전개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향상	- 민요 부르기 - 손장단 치기 - 민요 개사하기 - 악기연주(장구, 소고, 실로폰 등) - 신체활동(강강술래, 소고춤추기 등)	35분
마무리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 프로그램 마침 인지	소감 나누기 다음 회기에 대한 설명하기	10분

5) 프로그램의 적용 및 내용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향상을 목표로 하여 초기단계(1~3회기), 중기1단계(4~6회기), 중기2단계(7~10회기), 후기단계(11~15회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표 2).

1) 초기단계(1~3회기): 정서자극 및 친밀감형성

먼저 1회기는 ‘자기 목소리 내기’와 ‘각자 이름 소개하기’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시도하고 시작노래와 마치는 노래를 익히면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2회기는 ‘노랫말에 자기이름이나 별명을 넣고 불러 보기’를 하여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3회기는 ‘좋아하는 음식 말 해보기’로 사고의 조직화를 자극하였고 타인인식과 친밀감을 향상시켰다.

2) 중기1단계(4~6회기): 감정인식 및 감정표현증진

4회기는 ‘노랫말에 칭찬해 주기’를 하여 자신감을 형성하고 대상자간에 유대감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5회기는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느낌을 악기로 표현하기’를 하여 가족에 대한 자기감정인식을 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는 ‘화가 났을 때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기’로 빈 칸 채우기를 하여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하였고 화가 난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또한 다른 대상자의 감정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공감대 형성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3) 중기2단계(7~10회기):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향상

7회기는 ‘콜라주 기법’을 응용하여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신문, 잡지, 악보집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8회기는 다양한 감정을 담은 카드를 선택하여 손짓 또는 발짓 등을 활용하여 행동으로 묘사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맞히도록 하는 게임을 하여 감정표현의 일치감을 끌어냈고 알아맞혔을 때는 다 같이 “얼씨구, 지화자” 등의 추임새를 넣어 지지함으로써 소속감과 공감대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9회기는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자기의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을 주제로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민요 <진도 아리랑>을 개사하여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감정표현과 타인감정 인식, 그리고 친밀감과 공감대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10회기는 긍정적 감정 위주로 바램이나 희망찬 느낌을 도식카드를 그려보고 민요 <풍년가>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린 도식카드대로 지휘해 보도록 함으로써 성취감을 증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식카드로도 다 같이 지휘함으로써 공감대와 친밀감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4) 후기단계(11~15회기):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향상

11회기는 퇴원 후 바라는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강강술래>에 노랫말을 넣어 부르며 “얼씨구나, 좋구나”로 추임새를 넣어 다 함께 지지한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봄으로써 사고의 조직화를 향상하고 다른 사람의 계획도 듣고 지지해줌으로써 자긍심과 협동심을 향상하고 상호 간에 교류를 증진하게 하였다. 12회기는 겨울을 주제로 하여 겨울철에 생각나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군밤타령>을 부르면서 자기가 선택한 악기로 연주를 하도록 하였다. 각자 개별 연주 후에는 팀을 나누어 서로 의논하여 합주를 할 수 있다.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제공함으

로써 감정표현과 감정조절 및 사회성 향상을 강화하였다. 13회기는 민요 <옹헤야>를 율동과 함께 나오는 영상매체를 보고 노래를 익히고 난 후에 소고를 이용해서 팀을 만들어 팀원들끼리 서로 의논하여 율동을 짜도록 하고 자기 팀의 이름도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을 증진하였다. 14회기는 각 팀별로 소고춤 율동을 <옹헤야>에 맞추어 준비된 무대에서 보여줌으로써 박수와 지지를 받는 가운데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5회기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동안의 소감을 나누고 불렀던 민요곡 중에 부르고 싶은 민요를 부르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서로 인사 나누며 수고한 자신과 대상자들 간에 격려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마무리하였다.

표 2.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구분	각 회기 주제	내 용
초기 (1-3) 정서자극 친밀감형성	1. 나만의 목소리 듣기	① 자기 이름 소개하기 ②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소리를 내어 본다(‘아’ ‘우’ 등 단음절) ③ 서로의 소리를 듣는다.
	2. 나와 내 친구이름 불러주기(이름, 별명)	① 세마치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② ‘밀양아리랑’을 익힌다. ③ 메기는 일정 부분에 빈칸을 두고 이름이나 별명을 넣어 부른다.
	3. 좋아하는 음식 말해보기	① 영감타령을 영상으로 보며 따라 부른다. ② 연구자가 개사한 가사로 다 같이 돌아가며 부른다. ③ 가장 많이 나온 음식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요리 방법도 다 함께 이야기 해 본다.
	4. 노래로 칭찬해 주기	① 세마치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② ‘너영 나영’을 배운다 ③ 대상자들끼리 서로 칭찬해 주는 가사로 바꾸어서 부른다
중기1 (4-6) 감정인식 감정표현	5. 나의 가족	① 자진굿거리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② ‘신고산타령’을 익힌다 ③ 가족 중 한 사람을 정하고 그 가족의 특징과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6. 화가 나요. 아, 시원해.	① 굿거리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② ‘태평가’를 익힌다. ③ 메기는 일정 부분에 빈칸을 두고 대상자의 화가 난 느낌을 넣어서 함께 부른다.

(표 계속)

표 2. (계속)

구분	각 회기 주제	내 용
	7. 노래 콜라주 기법	① 세마치장단으로 ‘아리랑’을 부른다. ②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우울, 불안, 짜증, 분노 등) ③ 신문, 잡지, 악보집에서 선택한 감정과 일치하는 글이나 표정을 찾아서 ‘아리랑’ 가사 중 어울리는 가사를 찾아서 부른다. ④ 노래를 한 명씩 녹음하여 다 같이 듣는다.
중기2 (7-10)	8. 표정카드 표현하기	①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슬픔, 짜증, 불안, 우울, 기쁨, 사랑 등) ② 한 명씩 나와서 카드의 감정표현(손짓, 발짓 등)을 하면 알아맞히는 게임을 한다. ③ ‘닐리리야’ 노랫말에서 표현한 감정과 비슷한 구절을 다 같이 부른다.
감정표현 감정조절	9. 노래로 본 내 인생	① 영상으로 <서편제>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② 세마치장단으로 ‘진도아리랑’을 익힌다. ③ 과거 경험 중 떠오르는 것에 대해 개사하여 부른다. (어린 시절, 학창시절, 청년기 등)
	10. 내가 지휘자!	① 음원으로 ‘풍년가’를 들으면서 연구자가 준비한 도식카드를 손으로 지휘하듯 따라한다 ② 바램이나 희망찬 느낌으로 각자 도식카드를 만들어 ‘풍년가’에 맞춰 지휘 한다 ③ 각자의 도식카드를 순서대로 연결하여 지휘한다.

(표 계속)

표 2. (계속)

구분	각 회기 주제	내 용
후기 (11-15) 정서행동 대인관계기능 향상	11. 나의 직업	① 영상매체로 ‘강강술래’ 보고 따라 부른다. ② 퇴원 후에 바라는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 나눈다. ③ 이야기 나눈 것을 ‘강강술래’에 노랫말을 넣어서 부르고 “얼씨구나, 좋구나”로 다 같이 지지한다. ④ 양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신체활동과 함께 한다.
	12. 멋진 오케스트라	① 겨울을 주제로 한 ‘군밤타령’을 듣고 부른다. ② 여러 가지 악기를 만져보고 탐색해 본다. ③ 각자 선택한 악기로 ‘군밤타령’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한 후 팀을 나누어 합주한다.
	13. 소고춤 만들기	① ‘옹헤야’를 듣고 반복해서 부른다. ② 소고춤이 나오는 동영상을 다 같이 본다. ③ 팀을 나누어 소고춤을 팀원들과 의논하여 율동을 만든다. ④ 자기 팀의 팀 이름을 정한다.
	14. 소고춤 공연	① ‘옹헤야’에 맞춰 팀별 소고춤 보여주기 ② 다른 팀이 춤출 때 박수치고 “얼씨구” “잘 한다” 추임새 넣어주기 ③ 팀별로 공연이 끝난 후 소감 나누기
	15. 마무리	① 그동안 불렀던 노래 중 부르고 싶은 민요와 이유 이야기하기 ② 연구자의 장구 반주에 맞추어 민요 부르기 ③ 단체 사진을 찍고 다과를 나누며 소감 나누고 좋았던 기억 이야기 나누기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본 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추후조사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에 앞서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40525-201806-HR-50-02)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기간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단계별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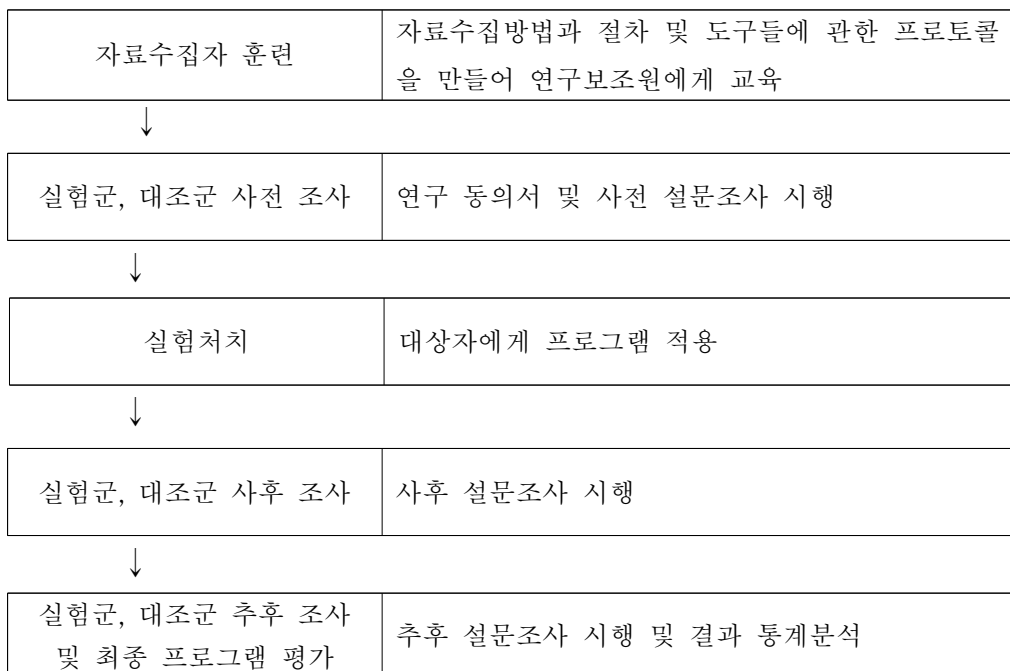


그림 4. 자료수집과정

1) 자료수집자 훈련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실험처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환경이 비슷한 대구경북소재의 약 260병상의 규모인 정신병원의 정신과 병동 2

개를 선정하였고, 실험의 확산효과 및 제 3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물리적 거리가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 한 병동은 실험군, 다른 한 병동은 대조군으로, 실험군의 성별, 연령, 진단 및 증상정도가 비슷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적 특성과 관련 변수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병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 중 연구대상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연구자가 직접 만나서 연구목적과 방법을 알리고, 대상자의 의문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보조원 두 명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받고 보호자 동의를 구했다. 조사자 간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주는 정보는 동일화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과 절차 및 도구들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연구보조원에게 교육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연구자를 제외한 3명의 관찰자가 실시하였고, 예비검사, 사전검사(프로그램 시작 전 주), 사후검사(실험 처치가 끝난 직후), 추후검사(실험처치가 끝난 2주 후)는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하여 제 3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가 담당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명과 병동 간호사 1명을 연구 보조 진행자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주 1회씩 1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고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2) 사전검사

프로그램 시행 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은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를 얻기 위해 연구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등 연구에 관련된 설명을 했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연구 참여의 의사를 밝힌 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정서행동척도 및 대인관계기능척도 검사는 대상자를 잘 파악 할 수 있는 경력이 15년 이상 된 병동 수간호사 1명과,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에

게 의뢰하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찰한 후 관찰자 세 명 모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시에 작성하게 한 후 일괄 회수하였다.

3) 실험처치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한 개의 실험군을 선정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주 2회, 8주 동안 총 15회로 하여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낮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군의 할당은 병동 수간호사에 의해 대상자의 성별 및 친밀도를 고려하여 12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상적인 간호와 약물치료, 활동요법을 제공받았다.

4) 사후검사

실험군은 8주간의 실험처치 직후, 대조군은 8주 경과 후 정서행동척도와 대인관계기능척도를 병동 경력이 15년 이상 된 병동 수간호사 1명과,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에게 의뢰하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찰한 후 관찰자 세 명 모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시에 작성하게 한 후 일괄 회수하였다.

5) 추후검사

본 프로그램을 시행 후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효과가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2주가 지난 뒤에 정서행동척도와 대인관계기능척도를 경력이 15년 이상 된 병동 수간호사 1명과,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에게 의뢰하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찰한 후 관찰자 세 명 모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시에 작성하게 한 후 일괄 회수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만원 상당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및 정서행동, 대인관계기능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는 χ^2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형성 검정을 통해 구형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다변량 검정의 값(Wilks' Lambda)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추정 값은 요인에서 기인하는 전체 변동의 비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에타 제곱(Partial Eta Squared)을 사용하였다. 부분에타제곱이 0.01 정도면 효과가 적고, 0.06 정도면 보통이고, 0.14 이상이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Land, 2001).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부터 연구의 목적, 방법, 피험자 권리 보장 및 설문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No, 40525-201806-HR-50-02)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시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 참여 철회,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정해진 방법에 의해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가 종결된 직후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나이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50세 이상으로 나왔고, 성별 분포는 실험군의 경우 남자가 45.0%이고, 여자가 55.0%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남자가 70.8%이며, 여자가 29.2%였다. 최종학력을 보면 실험군에서 중졸 이하가 25.0%이고, 고졸이상이 75.0%이며, 대조군에서는 중졸이하가 29.2%이며, 고졸이상이 70.8%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실험군에서 미혼이 50%이며, 기혼 및 기타가 50%이고, 대조군은 미혼이 50%, 기혼 및 기타가 50%로 동일했다. 종교유무를 보면 실험군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60.0%이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40.0%였다. 대조군의 종교유무를 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가 37.5%이고, 무교가 62.5%로 나타났다. 발병시기에서는 실험군에서 20대 이전이 30.0%이고, 30대 이상에서 발병한 경우가 30.0%, 40대 이상 발병이 40.0%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20대 이전에서 20.8%이고, 30대 이상에서 발병한 경우가 41.1%이고, 40대 이상에서 발병한 경우가 37.5%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을 보면 실험군에서 1년 미만이 15.0%이며, 1년 이상이 85.0%이고, 대조군의 경우 1년 미만이 0%이고, 1년 이상이 24.0%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4)

특성	구분	실험군(n=20) 빈도(백분율)	대조군(n=24) 빈도(백분율)	전체(n=44) 빈도(백분율)	χ^2 or t	p
나이	평균 $\pm$ 표준편차	52.40 $\pm$ 9.74	54.33 $\pm$ 9.27	53.45 $\pm$ 9.42	0.673	0.504
성별	남자	9(45.0)	17(70.8)	26(59.1)	3.012	0.083
	여자	11(55.0)	7(29.2)	18(40.9)		
	전체	20(100.0)	24(100.0)	44(100.0)		
학력	중졸이하	5(25.0)	7(29.2)	12(27.3)	0.095	0.757
	고졸이상	15(75.0)	17(70.8)	32(72.7)		
	전체	20(100.0)	24(100.0)	44(100.0)		
결혼	미혼	10(50.0)	12(50.0)	22(50.0)	0.000	1.000
	기혼	10(50.0)	12(50.0)	22(50.0)		
	전체	20(100.0)	24(100.0)	44(100.0)		
종교	유	12(60.0)	9(37.5)	21(47.7)	2.214	0.137
	무	8(40.0)	15(62.5)	23(52.3)		
	전체	20(100.0)	24(100.0)	44(100.0)		
발병 시기	20대이하	6(30.0)	5(20.8)	11(25.0)	0.793	0.673
	30대	6(30.0)	10(41.7)	16(36.4)		
	40대이상	8(40.0)	9(37.5)	17(38.6)		
	전체	20(100.0)	24(100.0)	44(100.0)		
입원 기간	1년 미만	3(15.0)	0(0.0)	3(6.8)	3.863	0.086
	1년 이상	17(85.0)	24(100.0)	41(93.2)		
	전체	20(100.0)	24(100.0)	44(100.0)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두 집단 간의 정서 행동, 대인관계기능에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집단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두 집단 간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N=44)

변수	실험군(n=20)	대조군(n=24)	t	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정서행동	2.81 ± 0.51	2.79 ± 0.57	-0.08	.934
대인관계기능	2.97 ± 0.48	2.74 ± 0.40	-1.73	.090

3. 가설검정

각 변수들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아 다변량 검정 값(Wilks' Lambda)을 사용하였다(표 5).

- 1) 제 1가설: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행동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대상자의 제 1가설 검정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체 간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814$, $p=.020$), 개체 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5.15$, $p<.001$). 집단과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0.99$, $p<.001$).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행동 점수가 더 증가하였으므로 제 1가설은 지지 되었다.

2) 제 2가설: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대인관계기능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대상자의 제 2가설 검정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체 간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1.72$, $p<.001$), 개체 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2.12$, $p<.001$). 집단과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86$, $p<.001$).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대인관계기능 점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제 2가설은 지지 되었다.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 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비교

(N=44)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ultivariate analysis			부분에타 제곱
집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Suorces	F	p	
정서 행동	실험군 (n=20)	2.81±0.51	3.33±0.50	3.29±0.48	개체간 개체내	Group	5.814	.020	.122
	대조군 (n=24)	2.79±0.57	2.79±0.57	2.71±0.48		Time	85.151	<.001	.806
	전체 (n=44)	2.80±0.54	3.03±0.60	2.97±0.56		G*T(Wilks' Lambda)	70.990	<.001	.776
대인 관계 기능	실험군 (n=20)	2.97±0.48	3.53±0.48	3.48±0.46	개체간 개체내	Group	21.716	<.001	.341
	대조군 (n=24)	2.74±0.40	2.75±0.41	2.69±0.38		Time	92.116	<.001	.818
	전체 (n=44)	2.84±0.45	3.10±0.59	3.05±0.58		G*T(Wilks' Lambda)	61.863	<.001	.751

V. 논 의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가설검정결과 및 간호학적 적용에 있어서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1.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현병 환자를 위한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정서인식, 감정조절, 감정표현의 일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 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기능 향상이 목표였다. 이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조현병 환자를 위한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관련 중재와 아래의 점에서 차이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팀으로 합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성 및 우호성을 증진하고 가사를 개사하여 부르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통찰력이 촉진되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 감정표현을 신체활동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일치된 감정표현을 증진하고 조현병 환자의 자·타인의 감정인식,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 등을 향상시켜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조현병 환자에 있어 문제는 개인이 지각의 체계를 가지고 의미를 형성하여 보다 정확한 감정표현으로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장애는 주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영역에서

드문 실정이다(Cross, Blake, Tunbridge, & Gill,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관련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얻어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 선행연구(권영애, 2009; 김두연, 양은아, 2013; 김효선, 2018; 박소영, 황은영, 2013; 임혜성, 2013)와 음악 활동집 및 전문서적 “국악·교수 학습법”(윤명원 등, 2018), “음악치료의 이해”(김남숙, 하승희, 2016), “음악심리치료 이론과 실제”(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7), “음악치료 기술“(김현정, 김성기, 2014)을 바탕으로 노래 부르기, 개사하기, 장단치기, 신체활동, 악기연주 등으로 본 연구자가 치료목적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국악치료전문가이자 음악치료전문가이면서 현 예술치료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재구성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과 일반화를 강화시키고자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훈련을 통합하였고, 다양한 교육전략을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적용할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간, 방법 등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이었던 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자신의 감정인식, 타인의 감정인식과 감정표현 등으로 구성된 개방된 정서공유의 과정을 통해 정서행동의 향상을 촉진하였고 상대방의 말과 표정을 보고 정확한 감정표현의 일치를 강화하도록 하여 이해와 공감하는 능력을 훈련하도록 개발하였다. 인지적 측면으로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정표현의 불일치, 의사소통 시에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의 어려움 등이며, 행동적 측면에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로 대인관계기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의 장애를 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로 규명하고 이러한 장애를 고려하여 개발한 간호중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현병 환자를 위한 선행 음악프로그램 중재연구와 차별화 되는 점이기도하며,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동영상 활용, 소고춤추기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관심과 주의집중을 높이고자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측면에서는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구성원 각자가 주제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회기마다 대상자들 모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마치는 소감평가에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냐”고 묻고 “영원히 민요교실 안 하나요?” “계속 더 했으면 좋겠다” 등의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조현병 환자는 본 연구의 음악치료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발전가능성을 지닌 성장가능 한 개체이며 적응결과로는 자기 및 타인의 감정인식의 혼란, 감정표현, 감정조절,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정함으로써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 중재를 활용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이론의 적용 영역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향상을 위한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의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 검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조현병 환자는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행동에 대한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 추후검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체 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민요를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드문 실정이며, 또한 적용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와의 비교분

석을 제시할 수는 없다. 기존에 일반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 적용 후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장은아, 2015; Pacchetti al., 2000)와 타악기를 이용한 즉흥연주는 감정을 표현하고 연주행위가 정서행동 변화에 유의하게 향상하였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Thaut (1990)의 연구에서 음악으로 유발된 정서반응은 정서수정을 가능하게 하며 치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ooten (1992)은 정서관리훈련 프로그램에서 자기감정 인식, 타인의 감정인식, 감정표현과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행동의 동기에 대한 요인을 추측하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인식 및 타인의 감정인식과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행동에 대한 세부내용에는 타인에 대한 감정인식이 포함되는데 이는 치료적 음악활동이 정서에 영향을 주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정서의 처리과정중 인식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김수정, 201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중기 1단계는 자기 및 타인의 감정인식의 향상을 목표로 구성되었는데 4, 5회기에 “노래로 칭찬해 주기”와 가족에 대한 주제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을 칭찬해 줌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악기연주를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을 표현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함과 동시에 타인인식을 촉진하였다. 반복된 치료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노래와 악기연주 등을 통해 발산하는 과정은 자기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서행동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Nordoff와 Robbins (1971)는 노래심리치료와 감정카드를 이용하여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고 지지하여 집단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감정조절에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중기 2단계는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향상을 목표로 구성되었는데 감정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하여 감정표현의 일치와 감정조절을 구체화하여 본 프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서 대상자 반응 중에 본 연구자도 알아맞히기 애매한 대상자의 표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무표정하게 서서 “여보세요, 여보세요”만 반복하는 대상자의 감정표현 방법은 모두가 알아맞히기 힘들어서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물었더니 가족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짜증 낸 것이라고 언어적 표현을 했다. 이는 음악활동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교류를 통하여 의사소통과 표현, 사회적 경험과 긍정적정서 반응을 유도하게 하는 치료방법이라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홍혜영 등, 2011). 해당 대상자의 초기단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에는 시선회피하고 바닥만 주로 쳐다보았고 양손 떨림이 심하여 악보를 보기는커녕 들고 있기도 힘든 환자였으나 이렇듯 중기 2단계에서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식카드를 만들어 지휘하기에서 대상자의 반응 중에는 사람의 형체를 그리거나 형체를 알 수 없는 도식카드가 있어 지휘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으나 또 다른 대상자는 도식카드와 함께 스스로 노랫말을 개사하여 표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긍정적인 감정표현의 개선을 위하여 매회기마다 “잘한다, 좋구나” 등의 긍정적인 추임새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한 것은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감정표현에 자신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매회기마다 “얼씨구, 지화자”로 추임새를 넣어 상대방을 지지하고, 받는 소리를 다 같이 부르면서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반복하여 감정표현에 있어 긍정적인 감정 및 부정적 감정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행동의 동기에 대한 요인을 알지 못한 조현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인식 및 표현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조현병 환자는 이수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대인관계기능에 대한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음악치료프로그램의 중재를 통해 효과를 나타낸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음악매체로 얻게 된 성취감과 자신감, 집단원 간에 지지와 격려를 통해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박영숙, 권윤희,

2012; 윤현덕, 2016; 이혜진 등, 2014; 황준성 등, 2012; McCaffrey et al., 2011; Tseng et al., 2016). 조현병 환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기가 거듭될수록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성이 증진되었으며, 대상자끼리 도와주고 함께하려는 우호적인 행동을 보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장구를 가져다 놓거나 악보를 나누어 주는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 또한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 의한 대인관계기능의 증진효과라고 여겨진다.

본 프로그램의 후기단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원활한 대인관계기능 향상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먼저 11회기에서 퇴원 후 나의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미래에 대하여도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호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팀을 나누어 양손을 잡고 “강강술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노랫말에 넣어 부르고 원을 그리며 신체활동과 함께 하였다. 대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참여성 및 적절성이 향상되었다. 미용사, 떡집 사장, 배타고 오징어 잡는 사람, 딸기 농사, 옷 장사, 제빵사 등, 다양한 직업들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그 중 사도세자를 지키는 장군이 되겠다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현실감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12회기는 겨울철에 먹는 음식을 주제로 “군밤타령”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악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연주하도록 했고 팀끼리 합주를 하도록 하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간의 갈등에서 화를 내지 않고 말로써 해결하려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 13, 14회기는 “옹헤야”에 맞춰 팀별로 소고춤을 만들도록 하였다. 13회기는 함께 상의하여 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하고 율동을 짜도록 하여 대상자들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초기에는 소고나 다른 악기연주에서 기호 하는 악기만 독점하려 하여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중기 이후부터 순서를 기다리고 타인 물건 사용 시에 허락을 받으려는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4회기는 소고춤 율동을 팀별로 보여주고 다른 팀이 춤출 때 박수 치고 “얼씨구” “잘 한다” 추임새 넣어주며 서로 간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고춤을 포함한 후기단계에서는 대부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타인의 의

견을 조정해서 완성할 수 있다. “군밤타령“의 악기합주나 “소고춤 만들기”는 팀원들끼리의 친밀감 및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이 증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음악치료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며 동기부여, 사회적 기능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Geretsegger, Elefant, Cochavit, Mössler, & Gold, 2014; McCaffrey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즉각적인 중재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신간호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 향상에 유용하고 가치 있는 간호중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정서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이므로 조현병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위축과 고립 등으로 증상 악화와 재발이라는 악순환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간호사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이해와 통찰을 가진 정신간호사 주도하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접근성이 뛰어난 비약물적 간호중재 방법으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문 자료들이 빈약하여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에 장애가 있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간호연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서인식 및 감정표현, 감정조절을 증진하여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간호중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증상악화와 재발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1개의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인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로 구성하여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 향상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검사지로 사전·사후·추후 검사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현병 환자의 특성상 그 의미파악의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과 많은 관찰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효진, 이봉건. (2011). 사회인지 동영상을 활용한 사회성기술훈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0(2), 381-39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5년(2013~2017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9년 2월 7일 인용.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39/26931>
- 권서령, 강경선. (2013). 민요와 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2), 1-17.
- 권영애. (2009). **민요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김남숙, 하승희. (2016). **제 2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두연, 양은아. (2013).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분상태 및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73-94.
- 김성직, 한양순. (1997). 만성 정신분열증의 사회적 기능과 인지적 변인 및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1), 27-40.
- 김수정. (2010). **음악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서표현, 대인관계, 질병침습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현정, 김성기. (2014). **음악치료 기술 기법론적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지식공감. 12-100.
- 김현정, 정재원. (201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 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9-38.
- 김효선. (2018). **민요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남인숙, 정광조, 최애나. (2013). 국악중심 음악치료가 시각장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53-74.

- 민성길. (2015). **최신정신의학 제 6판**, 서울: 일조각.
- 박강규. (1990).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 치료, **신경정신의학**, 29(1), 7-77.
- 박경호, 김현정. (2017).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독거노인의 우울감소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과학연구**, 53(30), 261-290.
- 박소영, 황은영. (2013). 한국 전통음악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51-71.
- 박영숙, 권윤희. (2012). 집단음악요법이 정신증상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재활간호학회지**, 15(2), 126-132.
- 박유숙. (2012). **강강술래놀이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정순. (2011). **사물놀 이와 민요교육이 특수아동의 문제행동교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9년 2월 17일 인용.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 568-12 정책보고서 2017-90. 서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13&MENU_ID=1310&CONT_SEQ=339835
- 서경희. (2010). 선후창방식의 치료적 음악활동이 시설 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3), 19-38.
- 서한범. (2010).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 손애리, 김지웅, 황순택, 최은애, 김성은. (2004). 정신분열병환자의 표정 정서 적절성 판단과 의도 파악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23(2), 327-338.
- 윤명원, 곽은아, 강혜인, 박소현, 박지영, 정모희 등. (2018). **국악 교수·학습법**. 서울: 학지사.
- 윤현덕. (2016).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음악치료학회**, 10(1), 20-32.
- 이성재. (2006).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서울: 서해문집.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11(1), 1-27.
- 이연옥. (2013).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 미치는 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지**, 1, 40-44.
- 이우경, 이혜원, 황태연. (2004).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위한 인지행동 재활훈련과 정서관리훈련**. 서울: 학지사.
- 이혜진. (2009). 통합적 미술치료가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1), 243-264.
- 이혜진, 이대보, 박민철, 이상열. (2014). 집단음악치료가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신경정신학회지**, 53, 40-53.
- 임려원. (2017). **만성조현병 환자의 대인관계기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임혜성. (2013).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의 논리적 근거 연구: 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장은아. (2015). **집단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와 자기표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현주. (2013). 인지 및 정서행동 영역에서의 음악치료사정을 위한 리듬 프로토콜(MACED-Rhythm) 개발예비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0(1), 67-83.
- 조경숙. (2017). 민요 선후창 가창방식의 이해와 활용. **국악원논문집**, 35, 173-202.
- 최세영, 한주빈, 오봉욱. (2017).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인간관계론**. 서울: 정민사.
- 통계청(2016). **정신질환실태조사**. 2019년 2월 5일 인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_nfmNo=117050&inputYear=2016
- 홍혜영, 정광조, 최애나(2011). 음악치료활동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7(2), 105-122.
- 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7). **음악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황준성, 채민, 박영주. (2012). 집단음악치료가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 환자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직업재활학회지**. 2(3), 5-2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renbaum, H., & Oltmanns, T. F. (1992). Emotional experience and expression in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37-44.
- Bradt, J., Dileo, C., & Shim, M. (2013). Music interventions for preoperative anxiety.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6*(6), CD006908. doi: 10.1002/14651858.CD006908
- Buccheri R., Trygstad L., Dowling G., Hopkins R., White K., Griffin JJ., et al. (2004). Long-term effects of teaching behavioral strategies for managing persistent auditory hallucinations in schizophrenia.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2*, 18-27.
- Cechnicki, A., Wojciechowska, A., & Valdez, M. (2008). The social network and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seven years after the first hospitalization. *Archives of Psychiatry & Psychotherapy, 10*, 31-38.
- Chanda, M. L., & Levitin, D. J. (2013). The neurochemistry of music.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7*, 179-193. doi:10.1016/j.tics.2013.02.007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Cross, M., Blake, P., Tunbridge, N., & Gill, T. (2001). Collaborative working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skills of a 14-year-old student with emotional, behavioural, learning and language difficulties.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7*, 227-246.
- Davis, L., Kurzban, S., & Brekke, J. (2012). Self-esteem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functioning and symptom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prospective analysis of

- modified labeling theory. *Schizophrenia Research*, 137, 185-189.
 doi:10.1016/j.schres.2012.02.003
- Davis, P. J., & Gibson, M. G. (2000). Recognition of posed and genuine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paranoid and nonparanoid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45-450.
- Davis, W. B., & Thaut, M. H. (1989). The influence of preferred relaxing music on measures of state anxiety, relaxation, and physiological responses. *Journal of Music Therapy*, 26, 168-187.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8).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Silver Spring: ERIC.
- Edwards, J., Jackson, H. J., & Pattison, P. E. (2002). Emotion recognition via facial expression and affective prosody in schizophrenia: a methodolog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789-832.
- Geretsegger, M., Elefant, C., Mössler, K. A., & Gold, C. (2014). Music therapy for people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7(6), CD004381. doi: 10.1002/14651858.CD004381
- Heimberg, C., Gur, R. E., Erwin, R. J., Shtasel, D. L., & Gur, R. C. (1992). Facial emotion discrimination: III. Behavioral findings in schizophrenia. *Psychiatry Research*, 42, 253-265.
- Howes, O. D., & Murray, R. M. (2014). Schizophrenia: an integrated sociodevelopmental-cognitive model. *Lancet*, 383, 1677-1687. doi:10.1016/S0140-6736(13)62036-X
- Judge, A. M., Perkins, D. O., Nieri, J., & Penn, D. L. (2005). Pathways to care in first episode psychosis: a pilot study on help-seeking precipitants and barriers to care. *Journal of Mental Health*, 14, 465-469.
- Kerr, S. L., & Neale, J. M. (1993). Emotion perception in schizophrenia: specific deficit or further evidence of generalized poor performa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312-318.

- Koelsch, S. (2010). Towards a neural basis of music-evoked emotions.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4, 131-137. doi:10.1016/j.tics.2010.01.002
- Kurtz, M. M., & Richardson, C. L. (2012). Social cognitive training for schizophrenia: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controlled research. *Schizophrenia Bulletin*, 38, 1092-1104. doi:10.1093/schbul/sbr036
- Land, B. (2001, July 1). migug simli hyeobhoe seutail (WEAPAS)e daehan web hwagjang (2.0 jeol) [WWW munseo]. URL [http://www.beadsland.com/ARC/1996/beadsland/ROOT/weapas/html/index/Land, T. \[aka Beads\] \(1997, 10 wol 21 il\). migug simli hyeobhoe seutail \(WEAPAS\)e daehan web hwagjang \(1.4.3 jeol\) \[WWW munseo\]. URL http://www.beadsland.com/weapas/](http://www.beadsland.com/ARC/1996/beadsland/ROOT/weapas/html/index/Land, T. [aka Beads] (1997, 10 wol 21 il). migug simli hyeobhoe seutail (WEAPAS)e daehan web hwagjang (1.4.3 jeol) [WWW munseo]. URL http://www.beadsland.com/weapas/)
- McCaffrey, T., Edwards, J., & Fannon, D. (2011). Is there a role for music therapy in the recovery approach in mental health? *The Arts in Psychotherapy*, 38, 185-189. doi:https://doi.org/10.1016/j.aip.2011.04.006
- Mössler, K., Chen, X., Heldal, T. O., & Gold, C. (2011). Music therapy for people with schizophrenia and schizophrenia like disorder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doi:10.1002/14651858.CD004025.pub3
- Mueser, K. T., Doonan, R., Penn, D. L., Blanchard, J. J., Bellack, A. S., Nishith, P., et al. (1996). Emotion re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chronic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71-275.
- Nordoff, P., & Robbins, C. (1971).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New York: J. Day Co.
- Pacchetti, C., Mancini, F., Aglieri, R., Fundaro, C., Martignoni, E., & Nappi, G. (2000). Active music therapy in Parkinson's disease: an integrative method for motor and emotional rehabilitation. *Psychosomatic Medicine*, 62, 386-393.

- Penn, D. L., Corrigan, P. W., Bentall, R. P., Racenstein, J. M., & Newman, L. (1997). Social cognition in schizophrenia. *Psychological Bulletin*, 121, 114-132.
- Silina, A., von Georgi, R., Gebhardt, S., & Weber, B. (2012). Indirekte wirkung der musiktherapie: transfereffekte auf die verwendung von musik im alltag bei personen mit psychischen erkrankungen. *Jahrestag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Musikpsychologie*, 28, 30.
- Strobel, W., & Huppmann, G. (1991). *Musiktherapie: grundlagen, formen, möglichkeiten*. Hogrefe: Verlag für Psychologie.
- Thaut, M. H. (1990). Neuropsychological processes in music perception and their relevance in music therapy. In R. F. Unkefer (Ed.), *Mus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Theoretical bases and clinical interventions* (pp. 3-32).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Tseng, P. T., Chen, Y. W., Lin, P. Y., Tu, K. Y., Wang, H. Y., Cheng, Y. S., et al. (2016). Erratum to: Significant treatment effect of adjunct music therapy to standard treatment on the positive, negative, and mood symptoms of schizophrenic patients: a meta-analysis. *BMC Psychiatry*, 16, 150. doi:10.1186/s12888-016-0846-1
- Wallace, C. J. (1986). Functional assessment in rehabilitation. *Schizophrenia Bulletin*, 12, 604-630. doi:10.1093/schbul/12.4.604
- Wooten, M. A. (1992). The effects of heavy metal music on affects shifts of adolescents in an inpatient psychiatric setting. *Music Therapy Perspectives*, 10, 93-98.
- Yinger, O. S., & Gooding, L. F. (2015). A systematic review of music-based interventions for procedural support. *Journal of Music Therapy*, 52, 1-77. doi:10.1093/jmt/thv004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자 동의서

동 의 서

1. 나는 피험자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자로부터 연구 및 연구 참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논하였습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원에게 문의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2. 나는 연구 및 연구 참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4. 나는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어떠한 손해도 없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나는 이 연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6. 나의 서명은 피험자 설명문과 이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았음을 뜻하며 향후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피험자: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이 경 자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필요 시)법정대리인: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피험자와의 관계: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자: 이 경 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연락처: 010-5759-2052 / byoung7273@hanmail.net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문의는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53-580-6299)로 해주십시오.

부록 2.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질문에 귀하께서 생각하시고 느끼는바와 일치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답해주신 신상에 대한 내용 및 설문지의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의 운영과 발전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동의하여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빠른 채우를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지도교수: 이 경 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자: 이 경 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연락처: 010-5759-2052 / byoung7273@hanmail.ne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질문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V표시를 하고 필요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이상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및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① 유 ② 무
6. 귀하의 발병 시기는?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이상
7. 귀하의 입원기간은?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부록 3.

정서행동 측정도구(Emotional behavior Scale)

다음의 각 번호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 2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회원들과 생활하면서 관찰하고 느낀 것을 기초로 환자에 대한 인상에 근거하여 보다 가까운 쪽에 표시(0) 하여 주십시오

① 자기감정 인식 및 표현

1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얼굴 표정이 일치한다.	5 4 3 2 1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얼굴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 좋다고 말하나 얼굴은 좋은표정이 아닌 경우)
2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이유를 설명한다. (예: 힘들어서 못해요, 00때문에 그래요)	5 4 3 2 1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이유를 설명하지 못 한다
3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다.	5 4 3 2 1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4	얼굴 표정만 보면 기분을 알 수 있다.	5 4 3 2 1	얼굴 표정만 보고는 기분을 알 수 없다.
5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좋아요, 화났어요, 싫어요, 부끄러워요)	5 4 3 2 1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6	긍정적인 정서 (예: 기쁨, 즐거움)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5 4 3 2 1	긍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7	부정적인 정서 (예: 슬픔, 두려움)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5 4 3 2 1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8	얼굴 표정이 풍부하다.	5 4 3 2 1	얼굴에 표정이 없다.

② 타인에 대한 감정인식

9	다른 사람들의 감정표현에 적절히 반응한다. (예: 슬퍼할 때 위로의 말이나 행동, 웃는 환자에게 웃음으로 반응하기)	5 4 3 2 1	다른 사람들의 감정 표현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 한다
10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다	5 4 3 2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다. (예: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해도 반복해서 같은 행동하기)
11	다른 사람이 다쳤거나 울고 있으면 관심을 보인다.	5 4 3 2 1	다른 사람이 다쳤거나 울고 있어도 무관하게 지나친다

③ 감정조절

12	12감정이나 기분이 안정되어있다.	5 4 3 2 1	감정이나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13	자신의 격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려 한다. (예: 화가 날 때 화를 풀기 위한 시도)	5 4 3 2 1	자신의 격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 한다
14	기분이 나빠져도 화풀이를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	5 4 3 2 1	기분이 나빠지면 화풀이를 행동으로 한다. (예: 물건 던지기, 밀치기, 때리기 등)
15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어도 참는다.	5 4 3 2 1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리치며 울거나 때를 쓴다.

④ 대인관계

16	치료진에게 친근감을 보이며 좋아 한다	5 4 3 2 1	치료진 앞에서 어색해 하고 피한다
17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 을 표현 한다	5 4 3 2 1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무관심 하다
18	먼저 말을 거는 등 대인관계 에서 적극적이다	5 4 3 2 1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 다
19	다른 사람들이 좋아 한다 예: 함께 식사하거나 짝이 되기 를 원함. 같은 프로그램에 참 가하기를 원함.	5 4 3 2 1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20	새로운 사람하고도 쉽게 어 울린다	5 4 3 2 1	새로운 사람하고는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부록 4. 대인관계기능 척도

평정자:

문 항 번 호	질 문	예----- -아니오				
		5	4	3	2	1
1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2	무슨 일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한다.					
3	대인 접촉이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4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5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6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서 일한다.					
7	타인과의 갈등에 화를 내지 않고 말로서 해결 한다					
8	필요한 때면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한다.					
9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10	치료진에게 필요할 때면 도움을 청한다.					
11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2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친다.					
13	상소리나 음란한 말을 하지 않는다.					
14	허락을 받고 남의 물건을 사용한다.					
15	화를 낼만 한 상황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다.					
16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 접촉을 하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17	말의 속도가 적당하다.					
18	목소리 크기가 적당하다.					
19	억양이 자연스럽다.					
20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다.					
21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다.					
22	말이 매우 많거나 적지 않고 적당하다.					
23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경청을 잘한다.					

부록 5.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어문저작물(제 C-2019-013338 호)

민요 음악 프로그램 1회기	
주 제	나만의 목소리 듣기
목 적	자기인식, 타인인식, 친밀감 형성
전 략	자기이름을 소개하고 신뢰감 형성하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
매 체	장구
도 입	- 가벼운 다과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 설명(치료시간, 회기의 내용, 치료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하고 간단한 질문을 받는다. - 다 같이 원을 만들어 서로를 바라 본 상태에서 자기소개를 한다.
전 개	- 이 활동은 프로그램 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연구자가 인사를 하고 한 사람씩 소개를 하면 대상자들은 간단히 자신의 이름 정도를 소개한다. - 가볍게 몸을 좌우, 앞뒤로 흔들면서 긴장 이완을 한다. -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편한 소리를 내 본다(처음에는 ‘아’ ‘우’ 등 단음절로 내다가 많이 알고 있는 “아리랑”을 한 소절씩 불러 보도록 한다). - 자유롭게 이동 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듣는다. -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소리가 편안하게 가슴에 공명되는 것을 느낀다. -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지금의 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 다 같이 모여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한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2회기	
주 제	나와 내 친구이름 불러주기(이름, 별명)
목 적	자기인식, 타인인식, 친밀감형성
전 략	‘밀양아리랑’의 반복되는 노랫말에 이름이나 별명을 넣어 자기소개를 하고 친구의 이름을 넣어 부른다(자신감, 성취감)
매 체	장구
도 입	- 세마치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덩 덩 따 쿵 따) - ‘밀양아리랑’을 익힌다.
전 개	- 메기는 일정 부분에 빈칸을 두고 자기이름이나 별명을 넣어 부른다. - 메기는 일정 부분에 빈칸을 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별명을 넣어서 부른다. - 한명씩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두가 한 번씩 불러볼 수 있도록 한다. 예) 순옥이 보소/ 순옥이 보소/ 우리 순옥이 보소 동지선달 / 꽃 보듯이 / 우리 순옥이 보소 - 한사람이 메기는 부분을 성취할 때 마다 나머지 대상자들이 큰소리로 받는 부분을 지지한다. 예)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3회기	
주 제	좋아하는 음식 말해보기
목 적	자기인식, 타인인식, 친밀감형성
진 략	‘영감타령’을 개사하여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고 표현하면서 사고의 조직화를 향상 시킨다
매 체	장구, 영상매체
도 입	- 영감타령을 영상으로 보며 따라 부른다. - 연구자와 함께 간단한 손장단을 익힌다
전 개	- 다 같이 손장단과 함께 연구자가 개사한 가사로 “영감타령”을 부른다. (예) 00님~왜 불러요/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 해 주세요. 고등어, 떡국, 잡채가 먹고 싶어요. (후렴) 잘했군/ 잘했어/잘했군, 잘했군/잘했어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 바꿔서 한다. - 가장 많이 나온 음식은 무엇인지 이야기 하고 요리 방법도 다함께 이야기 해 본다. -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의 조직화를 향상시킨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4회기	
주 제	노래로 칭찬해 주기
목 적	자기감정인식, 타인감정인식, 소속감 및 사회성 형성
전 략	-주어진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 한다
매 체	장구, 영상 매체
도 입	-제주도에 대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눈 다 -제주도에서는 너하고 나하고를 ‘너영나영 ’이라고 해요
전 개	- 세마치장단을 구음과 함께 손장단으로 쳐보기(덩 덩 따 쿵 따). -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너영나영>을 배운다 - 메기고 받는 소리로 나누어 불러본다. 두 사람씩 마주보고 서로를 바라 본 상태로 앉아 있다. - 대상자들 간에 서로 칭찬하는 가사로 바꾸어 부른 다 예) 내 친구/ 순옥 이는 /노래를/잘 하고요 내 친구/ 정만 이는 /정리정돈을/ 잘해요 - 노랫말의 일부를 바꾸어 부른 다 예)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 구요 사람은 늙으면()“
마 무 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5회기	
주 제	나의 가족
목 표	자기감정인식, 타인감정인식, 소속감 및 사회성 형성
전 략	-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을 표현하여 가족에 대한 감정을 인식 한다.
매 체	장구, 소고, 실로폰, 휴대용 피아노, 템버린, 케스터네츠, 심벌즈
도 입	- 자진굿거리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 손장단에 맞춰서 <신고산타령>을 배운다
전 개	- 가족 중 한 사람을 정하고 그 가족의 특징에 어울리는 악기를 정한다. (장구, 소고, 실로폰, 템버린, 케스터네츠, 심벌즈) - 그 가족에 대한 느낌이나 특징을 악기로 표현 한다 - 그 가족의 어떤 특징이나 느낌을 표현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눈다. - 그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신고산 타령>메기는 부분에 노랫말을 넣어서 부른다. (예) 간다온다/ 말도 없이/ 훌쩍 떠난/ 그 사람 야멸진/ 그 사람이/ 죽도록 /보고싶구나 (다함께) 어랑/어랑/어허 야 / 어야디야/ 내 사랑아 - 받는 부분을 다 같이 부르면서 메기는 소리를 지지 한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6회기	
주 제	화가 나요. 아, 속이 후련해요!
목 적	자기감정인식, 타인감정인식, 소속감 및 사회성 형성
전 략	-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 한다 - 가사를 개사하여 한 이나 맺힌 부분을 선창으로 메기면서 표현하고 후창 부분을 다 같이 받으면서 구성원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다.
매 체	장구, 소고, 탬버린, 휴대용 피아노, 신문지, 바구니
도 입	- 굿거리장단을 익힌다(덩기덕 쿵 더러러 쿵기덕 쿵따) - 손장단에 맞춰서 태평가를 배운다.
진 개	- 최근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기분을 표현하는 연주를 자유롭게 한다. (도구: 장구, 소고, 휴대용 피아노, 탬버린). - 연주 후 느낌을 토의 한다. - 태평가 노랫말을 빈칸 채우기로 만들고 그곳에 대상자의 생각을 넣어 함께 부른다. (예)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는/ 바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일도/ 하도 많으니 () -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을 생각하며 신문지를 찢은 후 그것을 뭉쳐서 한명씩 바구니에 던진다. - 던질 때 다함께 “가거라. 없어져라”라고 외치며 지지한다. -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나만의 상징’을 만든다. (예) 노래, 동작, 악기 연주 등.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7회기	
주 제	노래 콜라주 기법
목 표	-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향상(부정적 감정 위주) - 소속감 및 사회성증진
전 략	- 가사 선택 과정은 대상자의 통찰력이 촉진되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 한다. - 대상자가 현재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매 체	장구, 악보집, 신문지, 잡지
도 입	- 세마치장단으로 ‘아리랑’을 부른다.(딩 덩 따 쿵 따) -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은 카드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우울, 불안, 짜증, 분노).
전 개	- 선택한 감정에 맞는 가사를 신문, 잡지에서 찾아 구성해 본 뒤 ‘아리랑’ 노랫말을 적용하도록 한다. - 이때 연구자는 대상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단어로 바꾸거나 새로운 문장을 가사에 첨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노래가 왜 생각났는지, 가사 중에 나에게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부른 노래를 녹음하여 다 같이 들어 본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8회기	
주 제	여러 가지 표정카드 표현하기
목 표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향상(다양한 감정 위주), 소속감 및 사회성 증진
전 략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다양한 감정표현을 탐구를 할 수 있다.
매 체	장구, 표정카드, 악보집
도 입	- 굿거리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덩기덕 쿵 더러러 쿵기덕 쿵따) - 다같이 손 장단과 함께 ‘닐리리야’를 부른다.
전 개	- 오늘 탐구할 감정(슬픔, 우울, 불안, 짜증, 기쁨, 사랑)을 선택 한다. - “사람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모두 가지고 있죠“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말 하도록 한다. - 바구니 속에 여러 가지 표정카드를 두고 한 사람씩 카드를 뽑는다. - 선택한 카드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한사람씩 나와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대해 표현한 것인지 맞히는 게임을 한다. - 이때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 - 알아맞히면 다 같이“얼씨구, 지화자”로 추임새를 넣어 지지한다.
마 무 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9회기	
주 제	노래로 본 내 인생
목 적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일치, 소속감 및 사회성증진
전 략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지적 자극과 친밀감 증진,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매 체	장구, 영상 매체
도 입	- 다 같이 원을 만들어 서로를 바라 본 상태로 앉아있다. - 세마치장단을 구음과 함께 손장단으로 쳐보기(딩 덩 따 쿵 따) - 세마치장단에 맞춰 <진도 아리랑>을 부른다 .
진 개	-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리랑을 선택해 볼까요? 선택한 노래를 함께 불러본다. (아리랑, 밀양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등) - 진도 아리랑을 영상매체를 활용한 <서편제>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 과거 경험 중 떠오르는 것에 대해 메기는 소리의 노랫말을 개사 하여 부른다. - 받는 소리 즉, 후렴부분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여 노래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 개사한 노래의 가사와 관련된 배경과 이유를 이야기 하고 그때의 느낌을 함께 나눈다. (어린 시절, 학창시절, 청년기 등) - 개사한 노래를 공유하고 함께 부른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10회기	
주 제	내가 지휘자!
목 표	-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의 일치(긍정적 감정 위주) - 소속감 및 사회성증진
전 략	손으로 지휘자 흉내를 내면서 긍정적 감정표현을 신체활동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일치된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
매 체	장구, 영상매체
도 입	- 굿거리장단을 손장단으로 치면서 ‘풍년가’를 부른다.
전 개	- 명창들이 부르는 영상으로 ‘풍년가’를 들으면서 연구자가 준비한 도식카드를 손으로 지휘하듯 연구자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다 같이 따라해 본다. - 바램이나 희망찬 느낌(기쁨, 사랑, 행복 등)으로 각자 도식카드를 만들어 한사람씩 나와서 ‘풍년가’에 맞춰 지휘 한다. - 각자의 도식카드를 순서대로 연결하여 ‘풍년가’를 부르면서 지휘한다. - 나의 감정표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웠는지 또는 감정표현방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11회기	
주 제	나의 직업
목 표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향상. 사회성향상
전 략	- 퇴원 후에 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보고 현실감 있는 계획 잡기 - 상대방의 생각하는 미래에 대하여 지지해주기
매 체	장구, 영상매체
도 입	영상매체로 ‘강강술래’ 보고 따라 부른다.
전 개	- 퇴원 후에 바라는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 나눈다. - 이야기 나눈 것을 ‘강강술래’에 노랫말을 넣어서 한사람씩 부르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지지하는 노래를 한다. (예) 강강술래/강강술래/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중국집에 요리사요~ 강강술래/강강술래/ ‘얼씨구나 좋구나, 중국집 요리사 좋구나’ - 팀을 나누어 양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신체활동과 함께 한다. - 손을 잡고 신체활동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희망직업을 강강술래와 함께 지지해 준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12회기	
주 제	멋진 오케스트라
목 표	-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향상 - 사회성 향상, 상호교류기술 향상
전 략	팀으로 합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성향상을 할 수 있다.
매 체	장구, 영상매체, 소고, 실로폰, 휴대용 피아노, 템버린, 케스터네츠, 심벌즈
도 입	- 영상으로 ‘군밤타령’을 보고 따라한다. - 자진긋거리 장단을 손장단으로 익힌다.
전 개	- 겨울철에 먹는 음식을 이야기 해 본다. (예)군고구마, 군밤, 꽃감 등. - 겨울을 주제로 한 ‘군밤타령’을 듣고 부른다. - 여러 가지 악기를 만져보고 탐색 해 본다 - 각자 선택한 악기로 ‘군밤타령’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한다. - 팀을 나누어 합주한다. - 다른 팀이 합주할 때 큰소리로 ‘군밤타령’을 부르고 마치면 다 같이 박수 쳐 준다. - 다른 팀이 연주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팀 별 합주를 통해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성 및 우호성이 향상된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13회기	
주 제	소고춤 만들기
목 표	-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향상 - 사회성향상, 상호교류기술향상
전 략	팀으로 소고춤 율동을 짜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사회성 향상을 할 수 있다.
매 체	영상매체, 소고 20개
도 입	영상으로 ‘옹헤야’를 보고 따라 부른다. ‘옹헤야’ 노랫말을 보면서 익힌다.
전 개	- 옹헤야’를 듣고 반복해서 부른다. - 소고춤이 나오는 동영상을 다 같이 본다. - 팀을 나누어 소고춤을 팀원들과 의논하여 율동을 만든다. - 자기 팀의 팀 이름 정하기 -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잘 토론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살핀다. - 이번시간에는 율동 짜기로 마무리하고 다음시간에 팀별 발표를 할 것을 설명하고 마친다. -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소고춤 율동을 자유롭게 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하고 자칫 장난스럽거나 자극적인 요인을 배제하도록 살핀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14회기	
주 제	소고춤 공연
목 표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향상, 상호교류기술 향상
전 략	팀으로 소고춤 율동을 짜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대인 관계기능을 향상 할 수 있다.
매 체	영상매체, 소고 20개
도 입	- 무대를 준비하고 주변정리정돈을 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두 명과 병동 수간호사와 주치의를 참여시켰다.
전 개	- ‘옹헤야’에 맞춰 팀별 소고춤 보여주기 - 다른 팀이 춤출 때 박수 쳐주고 “얼씨구”, “잘한다” 추임새 넣어주기 -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팀에게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상품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팀들에게도 ‘특별상’ ‘안무상’ ‘협동 상’ 등을 만들어 소정의 상품을 나누어주고 vip상도 만들어 상품 전달하도록 하고 대상자 전체가 모두 상품을 받도록 한다. - 본 활동을 통해 모든 대상자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팀원의 일원으로써 자기의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고 완수함으로써 성취감, 자신감이 극대화 되어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요약 및 다음 회기 계획 이야기하기

민요 음악 프로그램 15회기	
주 제	마무리와 피드백
목 표	참여성 및 적절성, 우호성 및 수용성 향상. 대인관계기능향상
전 략	긍정적인 정서행동과 대인관계기능 향상
매 체	장구
도 입	간단한 다과와 함께 소감 나누고 좋았던 기억 이야기 나누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전 개	- 그동안 불렀던 노래 중에 부르고 싶은 민요와 이유를 이야기하기 - 연구자의 장구반주에 맞추어 민요 부르면서 자유롭게 추임새 넣고 발림하기 - 연구자 및 대상자간,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 준 연구보조원 두 명을 포함한 모두와 그동안 진행했던 전체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느꼈던 점이나 소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눈다 -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 이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및 서로에게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한다 - 대상자들이 그동안 본 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정서 행동 및 대인관계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한다.

부록 6. 연구자 활동 이력



<연구자 민요 활동 경력>

- 2014년 3월 14일: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제57호 동상건립기념 공연 - 국립극장 해오름
- 2014년 6월 13일: 창의적 민속체험 - 대구 비봉초등학교
- 2013년 5월 15일: 공동체 찾아가는 재능기부 - 칠곡 영송고등학교
- 2013년 10월 25일: 공동체 찾아가는 재능기부 - 대구 내서초등학교 강당
- 2013년 4월 26일: 구민과 함께하는 “복사꽃 소리의 향연” - 서구문화회관 대강당
- 2013년 5월 22일: 찾아가는 풍류 한마당 - 강북고등학교 대강당
- 2012년 11월 10일: 달구벌목민관 추원 제 비산농악 정기공연
- 2012년 10월 26일: “가을밤의 전통풍류 한마당”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2012년 10월 20일: 전국 날피북춤 경연대회 - 대구문화예술회관
- 2012년 8월 15일: 영남아리랑 보존회 - 대구문화예술회관
- 2012년 8월 24일: “한여름 밤의 풍물 해학 한마당” -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 2012년 3월 17일: 날 피 민속보존회 출범식 축하공연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2009년 ~ 2012년 9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국제탈춤페스티벌 대공연장
- 그 외 고택, 병원, 복지관 등의 다수의 재능기부 및 민요공연

Effect of Korean classical music therapy on the emotional behavi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ction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Lee, Kyung-Ja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yunghe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music therapy, particularly Korean classical music, on the emotional behavi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ction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44 patients with schizophrenia currently under care at the Daegu Kyeongbuk one psychiatric hospital, divided into an experiment group (n=20) and a control group (n=24). Data acquisition was carried out from December 19, 2018, to April 30, 2019.

The music therapy program us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over 15 sessions, held twice every week with each session lasting 50 minutes. Psychometric tools were used to assess the

behavioral measurement of emo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ctionin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WIN 21.0. pre-homogeneity testing was conducted using χ^2 -test, t -test, and Fisher's exact test; statistical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Wilk's Lambda test. The hypothesis was tested with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Regarding the results, the control group intervened with the folk-music therapy progra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results in emotional behavior ($F=5.814$, $P<.020$)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ctioning ($F=21.72$, $P<.001$)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music therapy program using Korean classical music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emotional behavi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ction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enthusiastic practical use of folk music therapy program as an effective method of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the emotional behaviou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nction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

이 경 자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이 경 희)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민요를 활용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대구경북소재의 1개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중인 조현병 환자 중 실험군 20명,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을 1회기 50분간, 주 2회 총 15회기를 중재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연구도구는 정서행동 측정도구와 대인관계기능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사전 동질성 검사는 χ^2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를, 가설검정은 Wilks' Lambda를 사용하였다.

결과: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행동($F=5.814$, $P=<.020$), 대인관계기능($F=21.72$,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정서행동 및 대인관계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으로 한국민요 활용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